

독도의 동물

과거에 강치는 독도 부근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함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인
1905년부터는 일본의 어부들이 남획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그 뒤로도 계속해서
포획을 하면서 독도 강치의 개체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은 1994년부터 국제 자연보전연맹에서
독도 강치는 멸종되었다고 선언을 했다.



독도의 경비대

경상북도경찰청 독도경비대
慶尙北道警察廳 獨島警備隊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Dokdo Security Police



설립일	1956년 4월 8일
관할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상급기관	경상북도경찰청 울릉경비대
울릉경비대 장	경정 배동욱
전신	독도의용수비대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독도경비대 공식 페이스북

정식명칭은 독도 경비대(DSP: Dokdo Security Police)이다.

경상북도경찰청 소속의 육상 경비 부대이다.

울릉경비대장에는 경정이 보임된다. 해양경찰청이 아닌 육경인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방어는 해군에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달리 경찰은 육지의 치안은 철저히 육경이 맡고 해경은 해상 및 항만 등 극소수의 육상 치안만을 담당한다.

16

독도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Fbrbr4muNlo>

독도의 역사

- 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 조선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 1531년(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
-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명시

독도의 역사

독도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줄곧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이때는 우산도라 불렸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삼봉도, 가지도, 석도라고 불렸다.
1900년에는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는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 명칭의 의미와 변화 과정

조선시대 독도의 공식적인 명칭은 '우산도'임

- 현재 남아 전하는 우리나라 기록 상, '독도'라는 명칭은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됨

우산도(于山島)

신라 지증마립간 13년(512)에 이사부가 부속한 우산국에서 비롯된 칭호로 추측됨

조선전기 지도에는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를 그려넣음

정상기(1678~1752년)의 「동국지도」를 필사한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이후의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작게 그려짐
우산도의 '우(于)'자를 잘못 기록하여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도 불림

독도 명칭의 의미와 변화 과정

석도(石島)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에 게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개칭하고 울릉 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하게 했는데, 죽도는 울릉도 동쪽 가까이에 있는 지금의 죽도[땃섬]이고, 석도는 독도를 가리킴

독도 명칭의 의미와 변화 과정

독도(獨島)

'돌섬'에서 연유한 칭호

19세기 말 울릉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돌'을 '독'이라고 불렀고, 울릉도를 개척하면서 들어왔던 강원도와 경상도 사람들도 '돌'을 '뚝'이라고 부름

'돌섬 → 독섬 또는 뚝섬 → 독도'가 되었고, 독도를 한자로 표기하여 '독도(獨島)'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됨

지금 남아 있는 기록 가운데 '독도'라는 호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일본 군함 니이다카[新高]호 '행동일지(行動日誌)'로,

'울릉도 한인(韓人)들이 '리앙코루도암[リアンコルド岩]'을 독도(獨島)라고 쓴다.'(1904. 9. 25.)고 기록했음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1906년 3월 29일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본 군 소속 독도(獨島)"라고 하여 '독도' 칭호가 처음 보임

독도 명칭의 의미와 변화 과정

석도(石島)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

독도(獨島)

'돌섬'에서 연유한 칭호

19세기 말 울릉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돌'을 '독'이라고 불렀고, 울릉도를 개척하면서 들어왔던 강원도와 경상도 사람들도 '돌'을 '뚝'이라고 부름

'돌섬 → 독섬 또는 뚝섬 → 독도'가 되었고, 독도를 한자로 표기하여 '독도(獨島)'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됨

지금 남아 있는 기록 가운데 '독도'라는 호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일본 군함 니이다카[新高]호 「행동일지(行動日誌)」로, '울릉도 한인(韓人)들이 '리앙코루도암[リアンコルド岩]'을 독도(獨島)라고 쓴다.'(1904. 9. 25.)고 기록했음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1906년 3월 29일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본 군 소속 독도(獨島)"라고 하여 '독도' 칭호가 처음 보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512년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